

여름방학, 문화예술 직업 찾아 ACC로 떠나볼까

공연기획부터 보존과학, 디지털 창작까지, 여름방학, 청소년이 문화예술 직업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2일부터 8월8일까지 전당 콘텐츠와 연계해 문화예술 관련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2일~내달 8일 청소년 대상 체험 운영
진로 설계해보는 ‘예비전문인교육’부터
블루투스 스피커 제작 ‘창작워크숍’까지

먼저 ‘여름방학 ACC 청소년 예비전문인 교육’은 22일부터 8월1일까지 문화정보원 문화교육실에서 열린다.

문화예술 관련 진로를 체험하는 심화형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이 예술을 경험하고 예비 문화예술 전문인으로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공연기획자’, ‘소장품 관리자와 보존과학자’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와의 만남과 실습을 통해 진로를 체험해본다.

오는 22~25일 진행되는 ‘공연기획자’ 과정은 공연기획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배우고, 실제 공연기획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이다.

참가자들은 공연 사례 소개와 극장 탐방, 무대 전문가와의 특강을 통해 무대 장치, 조명, 음향 등 공연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돕

는다. 이후 주 제별 공연 기획안을 작성해 최종 발표까지 실시한다.

오는 29일부터 8월1일까지 운영되는 ‘소장품 관리자와 보존과학자’ 과정은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복원 등을 담당하는 보존과학자와 소장품 관리 업무 전반을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평소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아시아문화박물관 수장고를 방문해 ACC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의 여러 소장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장품 등록 과정을 경험하고 토기류를 보존처리하며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체험한다.

‘ACC 청소년 창작워크숍’은 오는 8월6~8일 문화창조원 기계조형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ACC 창·제작 스튜디오를 돌아본 뒤 ▲LED 무드등 ▲LED 스탠드 ▲블루투스 스피커 등 작품을 만들어본다.

ACC 창·제작스튜디오는 다양한 제작 장비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ACC의 차별화된 공간으로 참가자는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재료 제작부터 완성까지의 창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김상욱 전담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수장고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공간을 방문하고, 또 아시아 문화자원을 통해 문화예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와 문화예술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한국 미디어아트, 로마 콜로세움을 물들이다

‘2025 한국-이탈리 상호문화교류의 해’
이이남 작가 미디어파사드 상영회 성료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세계적인 문화유산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미디어파사드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 미디어아트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세계에 각인시켰다.

‘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지난달 28일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에서 열린 이번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는 양국 예술이 빛으로 하나 되는 장관을 연출하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행사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했다.

이이남 작가는 이번 상영회에서 한·이 양국의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미디어아트 작품 ‘다시 태어나는 빛’을 공개했다. <사진>

콜로세움 외벽에 투사된 이 작품은 고대 로마 문명의 상징인 콜로세움과 한국 전통 회화 ‘십장생도’를 한 화면에 함께 구성함으로써 동서양 유산의 조화와 조화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두 문화가 하나의 빛으로 연결되며 새로운 문화적 이상향(Utopia)을 모색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이번 상영회는 콜로세움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작품이 동시에 상영된 첫 사례로, 상호문화교류의 상징적 순간으로 기록됐다. ‘빛’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 전통과 미래가 공명하는 장면은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문화를 잇는 다리로서의 미디어아트를 입증했다.

작품은 ‘시간의 울림(Echo of Time)’이라는 전체 주제 아래 과거의 예술과 현재의 감각, 그리고 미래의 상상력을 연결하는 구성으로 펼쳐졌다.

이이남 작가는 “콜로세움 외벽은 구조적 특성상 색상 표현에 제약이 많아 연출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물리적 제약을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미디어아트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통과 기술, 과거와 미래,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의 빛으로 연결되는 순간을 보여주고 싶었다. 예술은 결국 경계를 허물고 사람과 문화를 잇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콜로세움 미디어파사드는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 명소로 이탈리아의 주요 국가사업 홍보에 활용되는 대표 매체다. 이이남 작가는 이번 전시에 앞서 몽골 울란바토르 비엔날레 명예 초대작가로 참여했으며, 이탈리아 밀라노 MEET 미술관에서의 전시도 예정돼 있다. /최명진 기자

무더위 잊은 예술 모험 ‘우리는 북극탐험대’

이강하미술관, 여름방학 맞이 문화교육

이강하미술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025 우리는 북극탐험대’를 운영한다.

미술관은 그간 광주를 아시아 어린이 예술놀이터로 만들기 위해 예술가와 함께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어린이 북극탐험대’의 후속 심화 과정이다.

무더운 여름, 참여 어린이들이 ‘눈송이’가 돼 광주에서 북극까지 상상의 여정을 떠난다는 설정 아래, 북극과 광주를 연결짓고 공동체의 의미를 탐구해본다.

특히 캐나다 북극 지역과의 약 3년간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현장을 경험한 예술가·기획자들이 나서 어린이 눈높이에서 전할 수 있는 예술적 메시지를 콘텐츠로 풀어낸다.

교육은 이강하미술관이 자리한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의 지역 자원과 북극의 장소성을



연결해, 이를 어린이의 상상력으로 재해석하고 현대미술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오는 19일부터 9월6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1회에 걸쳐 운영되며, 초등학교 3~5학년생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전남문화재단 우수 작품 초청

12일 남도소리유폴터서 공연

한국 전통 고전 소설 ‘옹고집전’ 속 교훈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마당놀이 공연이 펼쳐진다.

전남문화재단은 오는 12일 오후 4시30분 남도소리유폴터에서 융복합 연희마당극 ‘제주 옹고집전’을 개최한다.

‘제주 옹고집전’은 지난해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사업 우수 작품에 선정된 작품으로, 전통예술과 현대예술 콘텐츠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시각의 창작 연희마당극이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제



주 옹고집전’을 통해 전통예술의 고유한 가치와 매력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전남도민에게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통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묵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CBS
Media Group™